

Reflection on the Social Dimension of Spiritual Direction

Jingu Kwon
(Mokwon University)

Abstract

Spiritual direction is not a product created and developed by an individual, but a historical product that includes the church, believers, society, and the contexts of the times. Among the social changes related to spiritual direction,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monasticism and the Reformation. Focusing on these two social changes,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dimension of spiritual direction indicated by the occurrence and change of spiritual direction and discusses its meaning. Around the time Christianity wa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Roman Empire, monasticism began its long history, and Athanasius spread his ideal of monastic life and at the same time pursued the unity of the church and the monastic movement. Through this process, spiritual disciplines and educational models interacted and changed. During the Reformation period, Protestantism began to form new spiritu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Catholic Church pursued renewal through new concepts and practices of spiritual direction. Spiritual direction is being formed and recognized as a means of helping the spiritual life of individual Christians. The origin and change of spiritual direction mean that spiritual direction can be understood and applied differently reflecting the contexts and situations due to social interaction. Also,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spiritual direction can act as a cause of integration or division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es.

Key Words

Spiritual Direction, Monasticism, the Reformation, Protestantism, Spirituality

영적 지도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고찰

권진구**
(목원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영적 지도는 한 개인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창작물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그리고 사회와 시대 상황을 포함하는 역사적 산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적 지도의 기원과 역사적 변화 과정을 통해 영적 지도에서 어떤 사회적 차원을 발견하고 논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영적 지도와 관련된 사회 변화 중에서 은둔 수도자와 공주 수도자들의 수도원 운동과 이나시오와 루터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종교 개혁에 주목한다. 이 두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면서 영적 지도의 발생과 변화가 지시하는 영적 지도의 사회적 차원을 분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 논한다. 기독교가 공인되는 시점을 전후해 수도원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수도자적 삶에 대한 자신의 이상(ideal)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교회와 수도원 운동의 연합을 추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적 훈련이나 지도의 모습이 상호 작용하고 변화하게 된다. 종교 개혁 시기에 신교(新敎)는 구교(舊敎)의 영적 전통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영적 교육과 훈련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고, 구교는 새로운 영적 지도의 개념과 실천을 통해 갱신을 추구한다. 현재 영적 지도는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하고 사회와 사회가 영향을 주고 받으며 기독교 내에서 성도의 영적 삶을 돕는 방편으로 형성되고 인식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 영적 지도의 발생과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영적 지도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적 지도는 하나의 사회로써 한국 개신교의 통합 또는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주제어 〉

영적 지도, 수도원 운동, 종교 개혁, 개신교, 영성

I. 들어가는 말

현대의 기독교 영적 지도의 개념은 초대 교회부터 존재하던 개념은 아니지만, 영적 지도는 영적 수련, 교육, 훈련, 생활, 관계 등을 돕는 형태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어느 시대나 상황이든 영적 도움을 요청하는 기독교인이 있었고 각 기독교 공동체는 지도 또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왔기에 기독교 역사의 어느 순간에도 영적 지도가 끊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 지도가 어떤 내용, 목적, 형태로 적용되는가는 각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문제였다. 사막의 은둔 수도자에게 있어 영적 문제는 영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어떻게 굴복시키고 극복할지의 문제였기에 이에 대한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가 필요했다. 새로운 신학으로 무장된 종교 개혁 당시의 개신교인들은 구교(舊敎)의 전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개혁된 영적 방편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영적 지도는 각 시대, 공동체,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왔고 개인과 공동체가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개별 공동체와 개인에 적합한 형태를 취해 왔다. 현재 논의되고 실천되는 영적 지도는 그 내용과 실천에 있어 과거의 예들과 다른 형태, 목적, 내용, 실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상황 및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와 상호 작용하고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영적 지도의 사회적 차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 개신교 학계에서는 이강학, 김경은, 오방식, 조한상, 이주형, 권영근, 성성종 등의 학자들이 영적 지도의 정의, 개념, 이론, 역사, 모델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생산했다. 영적 지도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연구는 사회와 구성원에 어떤 긍정적 영향과 변화를 주어야 하고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로 이해될 수 있고 이러한 주제로도 여러 연구가 수행됐다(권희순, 2006, 91-126; 김경은, 2015, 267-292; 이정순, 2018, 187-210). 본 연구는 기독교 사회 간 상호 작용과 기독교 내외의 사회 변화가 영적 지도의 기원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영적 지도의 사회적 차원을 다룬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영적 지도와 관련된 사회 변화는 은둔 수도자와 공동 수도자들의 수도원 운동과 이냐시오와 루터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종교 개혁이다. 이 두 시기의 사회와 사회 변화를 살펴보면서 영적 지도의 발생과 변화가 지시하는 영적 지도의 사회적 차원을 분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 해석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와 영적 지도 두 용어의 다양한 정의(定義)를 통해 본 연구에서 이 용어들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논의한다. 본문의 중심 내용은 수도원 운동과 종교 개혁 시기에 상호 영향을 준 개인, 공동체, 사회적 변화 등을 통해 영적 지도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한국 개신교에 있어 영적 지도의 사회적 차원이 갖는 함의에 대해 논한다.

II. 사회: 용어의 정의와 적용

사회(社會)라는 용어는 국제적 차원에서부터 국가, 마을, 소수 사람이나 동물의 모임에 이르기까지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이자 개념이다. 사회 문제는 국민 전체나 시민 다수의 문제일 수 있고 특정 계층이나 지역 사회의 문제인 경우도 있으며 한정된 대상에서 발생하거나 소수에만 직접 영향을 끼치더라도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 사회라는 용어는 많은 다양한 경우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본 연구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할지 먼저 정의하고 영적 지도의 사회적 차원에 대해 논해야 한다. 사회 또는 사회적 차원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는 점에서 간략하게 연구하도록 한다.

사회성, 사회화, 사회복지, 사회적 기업, 사회사업, 사회 계급, 상류사회, 시민 사회, 사회 정의, 사회 구조, 사회 현상, 사회윤리, 사회학 등 여러 용어가 사회라는 단어를 통해 각 용어가 지시하고자 하는 바를 함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성은 한 사회의 성격이나 특징을 의미한다기보다 한 사람의 대인관계를 뜻한다. 사회화는 인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 대한 것이며 동화(同化)의 의미도 갖는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지역 사회 등에 공헌하는 이윤 집단을 말하고 사회사업은 약자나 구호 대상에게 행해지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원조 활동을 뜻하며 대개는 직접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위의 용어가 갖는 의미의 공통점은 특정한 또는 불특정한 다수의 대상에게 영향력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수(多數)는 사회성에 있어서와 같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 즉 두 명의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개인 또는 복수의 사람과 맺는 여러 관계를 의미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명의 사람이 한 사회로 표현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경우 다수의 의미는 특정 또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 또는 집단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크기가 얼마나 커야 사회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피터 버거(Berger, 1977)는 섬에 갇힌 세 사람은 하나의 사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양적인 근거만으로 사회라는 용어의 타당성을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버거에 의하면 사회학자에게 있어 사회란 하나의 크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말하고 좀 더 기술적으로는 “상호 작용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앤서니 기든스(Giddens, 2020)는 사회를 “개인들의 단순한 모임(collection) 또는 집적(集積; aggregation)으로 환원될 수 없는 대규모 인간 공동체에서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들 및 제도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기든스는 사회 개념이 14세기부터 우애나 결속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고 20세기에 이르러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에 의해 인간 삶의 집합적 실재를 다루는 학문 분야로 정립되었다고 적고 있다. 게하드 렌스키(Lenski, 1987)는 인간 사회는 자치적인 집단 즉 외부의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집단

이라 이해하고 “광범위한 협력 행위에 참여하는 자치(self-governing)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1916)는 「정치학」에서 모든 국가(state)는 공동체(community)라고 표현하고 모든 공동체는 그들에게 좋은 것(good)을 위해 구성되었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political animal: zoon politikon)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를 렌스키에 정의에 비추어 보자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 실제 정치적 동물이라는 표현은 영문이나 라틴어로 종종 사회적 동물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사회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는 여러 크기와 형태의 인간 집단 자체, 다양한 인간 상호 작용, 물질, 문화, 교육 등을 포함하는 개인 또는 집단 간에 주고받는 유무형의 영향, 상호 도움, 추구하는 바의 실현, 이를 적절하게 실현하려는 시스템, 구조, 제도, 특성, 역할 등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위에서 살펴본 여러 다른 용어와 정의의 예에서 보듯이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된다. 본 연구 역시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차원에서 영적 지도의 사회적 차원을 논하고자 한다.

사회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 범위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차원이라는 표현은 기독교 사회가 내부적 상호 작용 및 다른 여러 사회와 상호 관계 가운데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기독교 구성원 사이에서 행해지는 영적 지도의 발생과 변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영적 지도가 어떤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하고 변화됐는지 사막 수도자 당시의 사회, 이냐시오와 루터의 사회, 그리고 현대 사회와 교회의 상호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기독교 특히 기독교 종파, 교단, 개체 교회, 공동체나 모임을 하나의 사회로 볼 때 개인과 집단이 이 사회 안에서 주고받는 영향, 도움, 추구하고 유지하는 시스템, 구조, 제도 등의 사회적 차원을 뜻하고 영적 지도의 행위가 기독교 사회에서 갖는 의미, 역할, 기능, 영향 등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많은 다양한 집단 또는 사회가 행하는 여러 형태와 내용의 영적 지도는 각 기독교 사회에 있어 실제적이며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고 기독교 사회 내부에서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각 기독교 공동체나 사회는 다른 기독교 사회와의 상호 작용에 따라 각기 다른 영적 지도를 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영적 지도의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모습이다.

III. 영적 지도: 용어 정의와 적용

본 연구에서 사회적 차원이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의미일 때 영적 지도는 어떻게 이

해되고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영적 지도의 사회적 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영적 지도의 정의는 시대, 상황, 경험, 이해에 따라 다르고 다양하다. 한국 개신교에서도 연구되고 실천되고 있는 영적 지도의 한 예를 보여주는 이냐시오(Ignatius of Loyola)의 「영신 수련(Spiritual Exercise)」은 16세기 예수회 창립을 전후해 영적 친교를 나누던 친구들에 대한 영적 훈련과 지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냐시오는 첫 번째 이르는 말(first annotation)에서 영신 수련을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삶을 관리(management)하는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는 것”을 영신 수련이라고 한다(Ignatius of Loyola, 1914, 3). 이에 따르면 영적 지도는 이러한 목적의 수련을 이끌어주는 지도 과정이 된다.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 1960)은 영적 지도를 각 기독교인 소명의 특정한 목적과 하나님과의 연합에 도달하도록 하는 지속적 형성과 안내(guidance)의 과정이라고 본다. 머튼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은 거룩함을 이루고 천상의 것(heavenly things)을 경험하게 해주는 마음의 완전한 순수함(perfect purity of heart)을 의미한다. 그는 또한 영적인 인간이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따라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다. 머튼은 이러한 인간은 관습적(conventional)이고 반사적인(automatism) 행동의 틀(routine)에서 벗어난다고 본다. 그는 영적 지도의 온전한 목적이 “내면의 영적 자유(inner spiritual freedom) 즉 우리가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likeness of Christ)이라고 부르는 가장 깊은 진실(inmost truth)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서술한다(Merton, 1960, 15-16). 제럴드 메이(May, 2009)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 영적 진실을 보고 반응하도록 돕는 것이 영적 지도의 본질이라고 이해한다. 그는 영적 지도를 인간 이해(comprehension)를 넘어서는 것을 자각(realization)하려고 하는 인간관계(human relationship)로 보고 영적 지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한 일관성이나 합의가 거의 없었고 현재에도 그렇다고 말한다. 제임스 넬슨(Nelson, 2009)은 기독교 전통에서 영적 지도는 고대 실천 방법으로 경험 많은 영적 스승이 그들의 지식으로부터 유익을 얻고자 하는 제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넬슨은 고대 영적 가르침을 주던 사막교부와 교모의 두 가지 자질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는 뛰어난 수준의 거룩, 경건,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분별의 은사(gift of discernment)이다.

엘리자베스 리버트(Liebert, 1992)는 영적 지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나 정의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영적 지도가 포함하는 요소를 주목(noticing), 듣기(hearing), 반응(responding), 이름 짓기(naming), 기념(celebrating), 행동(acting) 등이라고 본다. 리버트는 영적 지도란 교회의 목회적 돌봄 사역에 뿌리를 둔 개인 사이의 상호적(interpersonal) 관계를 돕는(help) 것이고 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성장시키는(foster) 일이라 설명한다. 윌리엄 베리(Barry,

1982)는 영적 지도를 한 기독교인이 다른 기독교인에게 하나님과의 개인적 소통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주는 도움(help)으로 정의한다. 베리는 영적 지도가 항상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union)을 성장(foster)시키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개인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서술한다. 제네트 바크(Bakke, 2000)는 영적 지도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돕는(help) 것이라고 말한다.

위의 예에서 살펴본 대로 영적 지도의 정의가 다양하듯 형태와 실천 내용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다양하다. 4세기를 전후로 시작된 수도 생활을 이끌던 사막 교부와 교모가 영적 지도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개념도 없었다. 공주 수도자에게는 그들의 영적 삶을 상징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수도자들은 영적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압바(abba)나 암마(Amma)의 가르침을 받았고 공동체 생활 또는 영적 정진을 위해 규칙과 권고에 순종했었다. 개신교 종교 개혁의 시기 천주교에서 새로운 사회(예수회; Societas Iesu)를 창립한 이냐시오는 영신 수련에 관해 설명하면서 열여덟 번째(eighteenth annotation)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Spiritual Exercises have to be adapted to the dispositions of the persons who wish to receive them, that is to their age, education or ability, in order not to give to one who is uneducated or of little intelligence things he cannot easily bear and profit by(Ignatius of Loyola, 1914, 11). [영신 수련은 받는 사람의 특성, 즉 나이, 교육, 능력 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교육받지 못한 자나 지적 능력이 적은 이에게 그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이냐시오는 타고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십계명, 간단한 기도, 성례전을 교육하거나 행하게 하는 것이 좋고 교육받고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찰과 묵상 등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권희순(2006)은 웨슬리 영성 수련과 이냐시오 영신 수련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웨슬리 영성 수련의 모델을 제시한다. 권희순의 영성 수련은 웨슬리의 신학적 전통을 따라 선제적 은총으로 시작해 완전을 향해 진행된다. 케냐의 예수회 수사이자 학자인 엔예게(Enyegue, 2021)는 아프리카의 문화에서 침묵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영적 지도의 어려움에 관해 얘기하면서 아프리카식 영적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한다. 감리교 목사였다가 천주교 사제로 서품받은 폴 존스(Jones, 2005)는 능력, 상황,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자기 지도(self-direction), 멘토링, 상호적 지도, 단체적 지도, 일대일 지도 등 여덟 가지 형태의 영적 지도를 소개한다.

미국 연합감리교에 뿌리를 둔 다락방(the Upper Room)에서 발간한 영성형성사전은 영적 지도를 성숙과 형성을 돕는(aiding) 실천으로 보고 넓은 의미에서 영적 지도가 기본적인

기독교 교육, 선포, 예배로 양육이 이루어지는 ‘모이는 교회(the gathered church)’의 사역이라고 서술한다(Beasley-Topliffe, 2003, 172-173). 사전에 따르면 일대일 영적 지도가 전통적 형태이고 소그룹으로 할 수도 있다. 교단, 평신도, 안수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실천될 수 있고 여러 프로그램이 다양한 개인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사전은 교회 역사에서 발견되는 여러 형태의 영성 지도를 소개하는데 사막교부와 교모에 의한 스승-제자 관계(master-disciple relationship), 수도자의 삶에서 실천되는 공동 영성 형성(communal spiritual formation), 중세 카리스마적 지도, 사제와 고해성사자(priest-confessor) 모델, 피정(retreat) 모델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 외에도 영적 지도를 실천하는 많은 개인과 단체는 각기 자신들에게 유익한 형태와 방식으로 영적 지도를 설명하고 실행하고 있다.

영적 지도에 관한 보편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영적 지도의 목적이 개인 또는 다수의 영적 삶,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소통을 돕는 것이라는 점은 영적 지도의 여러 정의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소통을 통한 분별 또는 개인의 영적 삶, 신앙생활, 일상생활의 조화와 균형이 영적 지도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영적 지도가 다양한 정의로 설명되고 여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길을 걸어왔고 시대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영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충족시키도록 노력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개신교 학계의 경우 영적 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 약 30년 정도 되었다고 보인다. 영적 지도를 주제로 한 논문과 서적이 출판된 것이 1990년대이고 이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논문과 글에서 영적 지도의 정의, 이해, 역사 등이 더 많이 언급된다. 대표적으로 김외식이 1990년 “영성 지도에 관한 연구”를 썼고 유해룡이 1997년 “영성지도의 전통과 현대적 의미”를 발표했다. 영적 지도를 연구한 초기 학자들은 영적 지도를 이해하기 위해 외국 학자들의 서적과 논문을 참고했고 영적 지도의 정의도 외국의 선행 연구와 서적,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서술되고 있다. 1980년대 한국 개신교에서 영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는 논문과 서적 등의 활발한 생산으로 나타난다(권진구, 2019a, 227-259). 영성에 관한 연구와 관심의 결과가 영성 지도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현재의 학문적 연구 수준과 실천적 적용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 개신교에 영적 지도가 적용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회나 교단보다는 소수의 신학교, 영성 관련 단체나 기관을 중심으로 더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IV. 영적 지도 발생과 변화의 사회적 차원

초기 사막 수도자 또는 수도원의 상황에서는 종교 개혁 시기나 현시대의 기독교인이 이해하고 정의하는 영적 지도의 개념이 없었다. 예를 들면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과 같이 특정 기간 내에 일련의 내용과 목적으로 대상자를 돕는 영적 지도 시스템을 갖지 않았다. 사막 수도자의 경우는 다양한 금욕적 삶과 성경, 압박과 암마 등의 본보기, 금언, 기도, 금식 등이 자기 지도의 방편으로 적용되었다. 공주수도원의 경우는 수도자들의 삶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규칙에 따른 삶이 공동 지도의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이 규칙은 성경, 금욕적 생활, 기도, 금식, 노동, 압박과 암마에 대한 순종 등을 포함한다.

베네딕타 워드(Ward, 1984)는 수도자들이 영적 정진을 위해 타인의 도움(assistance)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을 것이지만, 사막의 교부와 교모들의 영적 지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anachronism)라고 말한다. 워드는 사막교부와 교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과정은 영혼과 육신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지시(direction)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설명한다. 독거 수도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안토니오스(Antonios; Anthony the Great)의 전기(傳記) 초반부는 그가 교회와 성경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실천했다고 적고 있다. 그가 수도자의 삶에 귀의하는 장면에서는 홀로 은둔 생활을 해오던 한 노인을 모방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Athanasius, 2009a, 59). 나아가 안토니오스는 덕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덕의 길(the way of virtue)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받았다. 수도자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인물조차도 이미 수도자의 길을 걷던 이들을 모방하고 배우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후 안토니오스는 더욱 금욕적인 생활에 정진하고 몸과 마음의 정욕을 이겨내 영적 깨달음과 능력을 얻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아타나시우스(2009a)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그의 삶을 보고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그가 생활하는 곳으로 몰려들면서 수도원이 생기게 되었다.

안토니오스의 전기는 아리우스(Arius)와 논쟁했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타나시우스는 박해 시대에 태어났고 로마제국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주교가 되었다. 아리우스파와의 논쟁으로 인해 여러 번의 유배 생활을 했고 이집트 사막의 수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아타나시우스와 동시대 인물인 그레고리 나지안주스(Gregory of Nazianzus)가 아타나시우스에 관해 쓰고 분석한 글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오스의 생애에 대해 글을 쓴 이유와 사막 수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en, 2009)는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오스의 생애를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해 수도자의 삶에 법칙(law)을 세웠다고 쓴다. 안토니오스의 삶은 기적, 치유, 영적 가르침으로 가득한 글로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지만, 전기의 마지막 부분은 안토니오스에 대한 아타나시우스의 평가로 마무리된다. 아타나시우스(2009a)는 가장 마지막 문단을 시작하며 “형제들로 하여금 수도사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며”라고 적고 있다.

수도적 생활에 대한 태도와 규범 등이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4세기 초 기독교가 제국에 의해 허용되고 교회는 활발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Constantine the Great)와 그의 어머니 헬레나(Helena of Constantinople)는 성묘교회(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와 같이 크고 웅장한 교회를 제국 곳곳에 세웠고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제국을 통해 종교적 이상을 실현해 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와 거의 동시에 기독교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평신도들이 사막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사막교부, 사막교모, 은수자, 공주수도자였다. 그리고 안토니오스의 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아타나시우스 역시 사막의 신앙 공동체의 필요성과 영적 유익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다. 더 많은 기독교인이 사막으로 몰려들었고 은둔 수도자가 늘어나고 공주수도원도 더 많이 설립되었다. 이집트 나일강 주변은 수도자들의 삶에 적합한 환경이었고 알렉산드리아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아타나시우스의 교도권(magisterium) 내에 속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알렉산드리아 주교는 늘어나는 평신도 은수자와 공주수도자들의 신앙과 실천을 돌보지 않을 수 없었고 이미 여러 번 이단과 충돌하고 고난을 겪은 경험으로 인해 이들에게 신학과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위에서 언급한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의 글과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오스의 동료 수도자였던 세라피온(Serapion of Thmuis)에게 보낸 수도자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한 편지가 있다(Athanasius, 2009c, 982-985).

따라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에게 하나의 과제는 당시 두 종류의 사막 수도자의 삶을 서로 연결하고 또한 이들과 교회를 연결하는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두 종류 중 한 종류는 은수자로 불리는 수도자들의 독거 수도 형태였고 다른 한 종류는 공주수도원의 형태였는데 후자는 전자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었다(권진구, 2019b, 156-161). 은둔 수도자들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물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였으며, 극단적 금욕을 통해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공주수도원의 형태는 은수자에게 있어 사회에 속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의 형태였을 것이고 안토니오스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수련의 장소를 옮겼듯이 피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은수자들이 사회와 사람을 철저히 회피한 것은 아니다. 안토니오스가 때때로 그랬듯 가르침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았으며 기도와 도움이 필요해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고 영적 능력을 발휘했다. 서로 찾아다니며 배우고 가르쳤고 실천을 통해 모범이 되고 이러한 전통을 이어나갔다. 이들에게 문제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상징이자 실제적 영적 영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성례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지만, 다른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수도자 중에는 교회의 지도자로 지명되는 이들이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늘어났으나 수도자의 삶을 유지하고 영적 수련을 지속하기 위해 지도자직을 거부하는 수도자가 있었다. 아타나시우스(2009b)가 드라콘티우스(Dracontius)에게 쓴 편지를 보면 주교직(episcopate)을 거부한 드라콘티우스에 대한 호소, 권면, 우려 등이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수도자들이 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 아타나시우스(2009b)는 교회의 체계를 세우는(organizing) 것이 혐오스러운(distasteful)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어서 아타나시우스는 감독의 자리가 죄를 짓게 하는 자리이거나 죄의 유혹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요청한다. 수도자들은 어느 정도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었고 제국의 정치적 변화, 교회의 신학적 분쟁, 사회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영적 목표로 인해 교회의 영적 권위를 쉽게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아타나시우스가 드라콘티우스에게 쓴 편지에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를 변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오스의 전기를 쓰고 공주수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교회의 지도자로 삼고자 했던 것은 두 종류의 수도 생활을 연결하고 이들을 교회로 연결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영적 모범과 규칙(exemplar and regulation)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안토니오스가 덕의 길을 먼저 경험한 선배를 찾아다닌 예와 그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지도받고자 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은둔 수도자의 모범과 지혜(exemplar-wisdom) 형태와 공주수도원의 규칙과 순종(regulation-obedience) 형태가 결합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일대일 모범과 지혜 형태와 공동체의 규칙과 순종 형태의 영적 도움은 이전부터 계속된 기독교의 교육이고 실천이었지만, 이러한 영적 도움이 상당한 규모의 평신도 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연합되게 한 것은 이전에 없던 현상이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관상(contemplation), 성찰, 기도 등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두 형태의 수도 생활이 점차 교회의 교도권에 편입되어 교회의 조직 구조로 들어가고 교회를 닮고 추구하는 일치의 모습인 공주수도원이 주도적 수도 생활의 형태가 되면서 모범, 지혜, 규칙, 순종의 요소가 결합한 영적 훈련과 훈육(exercise and discipline)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아타나시우스(2009a; 2009d)는 관상에 대해서 안토니오스의 관상적 모범(rejoicing in the contemplation in divine things)을 이야기하고, 부활절 서신(the Festal Letter)을 통해 하나님을 관상하는 것은 듣는 자들을 유익(nourish)하게 하기에 충분하고 모든 양식(food)에 앞서는 양식이라고 표현한다. 관상과 더불어 훈련과 훈육 모델은 새로운 영적 도움의 형태가 아니라 영적 도움의 다양한 방편이 좀 더 유기적으로 종합된 적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은수자의 영적 전통이 지속하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닌 공주수도원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되게 되었다 볼 수 있다.

파코미우스로 대표되는 공주수도원의 초기 단계에는 공동생활의 영적인 모범이 될만한 역사적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 은수자들에게는 안토니오스의 예에서 보듯이 이미 선배 격인 사막의 거룩한 여인들과 고행자들 등 여러 모범적 예가 있었지만, 당시 공주수도원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영적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은 많지 않았고, 있었다고 해도 은수자의 전통과 관련이 있는 이들이었다. 파코미우스의 전기에서도 안토니오스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는데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견제의 대상이기도 한 것으로 표현되어있다. 반대로 아타나시우스의 안토니오스 전기는 은수자인 안토니오스를 부각하며 공주수도원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수도적 생활의 기원이 영적 권위가 충분한 인물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어 공동생활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중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수도자의 은둔생활과 공동생활을 연결하고 결합한다는 것은 두 생활이 주는 영적 유익의 장점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본래 가지고 있던 요소가 더욱 강조되고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아타나시우스의 이러한 노력과 결실에 대해 그레고리 나지안주스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During his intercourse with them, the great Athanasius ... reconciled the solitary with the community life by showing that the Priesthood is capable of contemplation, and that contemplation is in need of a spiritual guide. Thus he combined the two, and so united the partisans of both calm action and of active calm ... they gained in return greater assistance in contemplation(Gregory of Nazianzen, 2009, 558-559).[수도자들과 교류하는 동안 아타나시우스는 사제들이 관상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관상을 하는 데 있어 영적 안내(guide)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독거자들을 공동체 생활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둘을 연합하게 하고 고요한 실천과 활발한 고요 모두를 추구하는 이들을 하나로 모았고 이로 인해 그들은 관상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서 영적 도움은 지속해 실천되던 영적 방법의 하나였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왔지만, 아타나시우스를 통한 독거와 공동생활의 결합은 영적 도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전환점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사막으로 물러드는 초심자와 영적 수련에 정진하는 수도자들을 교회의 교도권 아래에 두기 위해 스스로 그들의 관상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의 주교직, 신학, 아리우스 신학과의 논쟁, 수도자들과의 적극적 교류, 안토니오스 전기, 관상에 대한 이해와 실천 등을 통해 은수자와 공주 수도자를 하나로 연결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완성 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대다수가 평신도였던 수도자들은 교회의 권위와 성례전을 필요로 했고 알렉산드리아 주교이자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정통 신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아타나시우스의 승인과 도움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수도자들이 세워가는 공동체는 사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도적 공동체가 아니었고, 아타나시우스도 안토니오스를 수도원 공동체의 기원으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의 신학과 영적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체 교회에 있어 평신도 수도자인 자신들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자들의 권위가 인정받고 수도자의 거룩한 생활이 기독교적 삶의 한 모범으로 인정되면서 명망 있는 수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교황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그레고리 1세(Gregory the Great)있는데 수도자 중 교황이 된 첫 번째 인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와 수도원이 더욱 긴밀하게 결합 되면서 수도원 운동 초기의 순수한 모습은 퇴색되어가고 수도원이 교회의 기관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수천으로 늘어난 수도원과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이 많은 수도자가 권력과 부를 얻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서 중세 수도원은 개혁의 대상이 되게 된다.

영적 도움의 훈련과 훈육 형태는 중세에 계속 이어지고 여러 영성가 또는 수도자들에 의해 자기 성찰과 관상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에바그리우스(Evagrius Ponticus)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며 성찰하기를 촉구하고 정념과 무정념의 상태를 설명했다. 카시아누스(Ioannes Cassianus)도 인간의 욕망과 죄에 대해 고찰하며 회개하고, 나아가 정화되고 조명된 상태로 하나님을 관상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영적 길을 제시했다. 이후 여러 수도자가 다양한 가르침을 전했고 그 내용은 자기 성찰, 회개, 정화된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나 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도원과 수도자가 늘어나고 수도자들의 훈련과 훈육에 대한 이론이 체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수도자들의 영적 정진이 그 최고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이성적 능력과 영적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수도원은 점차 교육을 제공하고 기독교 문서를 생산, 보관, 필사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중세는 서방 교회나 동방 교회의 영성에 있어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변화가 있었고 수도원의 타락과 개혁이 반복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변화 중에는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의 체계화, 예수 기도의 신학과 구조의 확립, 관상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정립, 개혁적 수도원의 설립 등이 있다. 영성 지도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 연구로는 조한상과 심종혁(2015)의 “영적 지도의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 적용”이 있다. 이 논문에는 영성 지도의 성서적 기원, 사막 수도자의 시대와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본 연구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예와 역사적 분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를 참고하는 것은 본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이냐시오에 이르러 영적 도움은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종교 개혁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개혁 또는 반개혁(counter-reformation)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마틴 루터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Order of Saint Augustine)의 수사였다. 이 수도회의 수도자가 따르는 규칙을 쓴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안토니오스의 생애를 읽었으며 수도자의 삶을 추구한 적이 있고 스스로 수도자를 위한 규칙을 쓰기도 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는 중세에 창립된 수도회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운 수도회는 아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규칙에는 기도하고 시편을 낭독해야 하며 영적 아버지에게 신실하게 복종하라는 내용이 있고 수도원 밖에서 여성을 마주칠 때의 행동, 수도자의 복장 관리 등 여러 행동 규칙에 대해 쓰여있지만, 관상에 대한 특별한 강조는 없다.

마틴 루터는 여러 신학적 주제와 관상에 관한 글, 설교, 서신을 썼다. 루터(Luther, 1997a)는 그의 논고 바빌론 유수(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의 고해성사(the Sacrament of Penance)에 관한 부분에서 회개를 가르치기 전에 믿음이 가르쳐져야 한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회상(recollection)과 관상(contemplation)에 의한 회개(contrition)를 말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은 위험(perilous)하고 잘못(perverse)된 것이라 말한다. 루터(1997b)는 다른 글인 기독교인의 자유(A Treatise on Christian Liberty)에서 루터는 의로움(righteousness), 자유, 하나님의 말씀 없는 관상과 묵상(meditation) 등의 무용함에 대해 말하면서 오직 말씀만이 영혼을 도울 수 있고 말씀만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한다. 루터(1997c)는 디모데전서 2장과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기도를 공동 기도(common prayer)라고 부르고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기도라고 표현한다. 또한, 이러한 기도가 성도를 하나로 모으고,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한다고 주장한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으로라는 신학적 신념을 중심으로 교회의 기능, 목회자의 역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이해했다. 위에서 언급된 글 외에도 많은 곳에서 루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믿음과 성경에 기반을 둔 신학, 목회, 교육, 신앙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천주교를 비판하고 여러 방면에서 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새로운 교회에 소속된 이들이 수도원과 관상적 전통을 완전히 무용한 것으로 여기거나 버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신교인(Protestant)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더는 수도원의 영적 도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영적 전통을 세워가게 된다. 이들은 성경, 예배 기도, 그리고 성례전 중에 몇 가지를 중심으로 공동의 영적 생활을 구성했다. 성모와 성인에 대한 공경의 전통은 열어지고 이들과 관련된 기도나 예식이 사라지거나 축소되었다. 사자(死者)에 대한 기도, 고해성사, 묵주기도, 관상기도 등도 거부되거나 중요성이 작

아졌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인적 영적 방편이 되었고, 성례전은 단지 상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신학적 배경이 형성되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다. 라틴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된다.

이나시오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영적 쇄신의 이유가 되고 영적 교육과 도움을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스티븐 오즈먼트(Ozment, 1980)는 이러한 이유로 영신 수련을 “사제와 평신도를 위한 자기 수련의 반종교개혁 매뉴얼(counter-reformation’s manual of self-discipline for clergy and laity)”이라고 부른다. 교황에게 순종을 맹세하며 시작된 예수회는 새로운 회원이 입회할 때 교황에 관한 순종의 내용이 들어간 맹세를 요구했다. 맹세의 내용에는 예수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선교가 담긴 내용이 있는데 그 대상지의 예는 터키, 인도 등지와 함께 이단(heretics)과 분리자(schismatic)를 포함한다(O’Malley, 1983, 46). 영신 수련은 이전의 수도원 전통에서 행해지던 주요 영적 방편의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특정한 기간과 주제를 설정해 수련의 내용과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주제는 천주교와 개신교 성도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가장 익숙한 내용이었다. 이나시오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당대 큰 영향을 끼친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 2011)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는 것을 영신 수련 2주 차에 권면하기도 하는데, 이 책에는 자신과 죄에 대한 성찰,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한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인 수도원의 수련이 수도원이라는 특정한 환경과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나시오는 수련을 더욱 개방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그 내용을 더 체계적이면서도 대중적으로 바꾸었고,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 즉 수도자에게 받던 도움을 수련을 줄 준비가 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덜 권위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현대에 이르러 영적 지도나 동반 등의 영적 도움 형태는 다양화되고 있다. 어떤 영적 지도자협회는 더욱 대중적이며 종교, 종파, 교단, 개체 교회를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영적 지도자 국제협회(Spiritual Directors Internationals)에는 다양한 종교의 영적 지도자가 소속되어 있고 지도자에 따라 추구하는 영적 지도의 형태와 내용도 각기 다르다. 복음적 영적 지도자협회(the Evangelical Spiritual Directors Association; ESDA)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 지도를 추구한다. ESDA는 수련자(students)에게 최소 2년의 무료 등록과 영적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적 지도, 기도 등의 이론과 역사, 실천에 대한 주제의 강연을 열고 있다. 수련자는 동료나 선배 지도자에게 지도(supervision)받아야 하고 여러 영적 지도 방편을 경험하도록 권면한다. 한국과 미국 등에는 이미 유료화된 영적 지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개인 영적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국의

영적 지도 상황은 이강학(2019)의 논문에 소개되어 있다.

V. 나가는 말: 영적 지도와 한국 개신교 사회

이미 인류는 그리스와 로마, 중국과 인도의 철학과 종교 등에서 보듯이 사회가 추구하는 사상과 신성함의 영역을 교육하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더 나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 실시해 온 모범-지혜(exemplar-wisdom), 스승-제자(master-student) 등의 지도 형태를 활용해 왔다. 종교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행위 역시 유대교, 힌두교, 불교 등 보편 종교에서 지속해 실시해왔다. 모든 종교는 초월자 또는 보편적 원리에 인간이 더 가까워지는 방법과 훈련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이러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모범-지혜, 스승-제자, 규칙-순종의 형태는 보편적인 교육의 형태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고 내용과 목적에 따라 변형되어왔다. 현재는 대부분 국가와 사회에서 1대 다수의 형태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 교육이 가장 보편적 형태이고 이는 사회 변혁, 사상, 실용과 효율, 정치와 경제, 교육 철학 등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내면, 정신, 마음에 대한 고려 없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개인화되고 사적 영역이 확대되는 사회에서 사람의 내면에 대한 도움은 공적 교육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와 종교가 분리되고 종교적 가르침이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는 오랜 시간 인간이 보여준 본질적 모습 중 하나인 초월적 존재나 궁극적 실재(reality)에 대한 물음과 추구를 다룰 방법이나 내용이 적용될 수 없다. 영적 지도가 한 개인의 영적 생활을 돕는 행위이고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영적 생활과 관계에 가치를 두고 이러한 생활과 관계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구성원의 내면과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노력이고 도움으로 볼 수 있다.

각 기독교 사회와 공동체는 영적 도움의 유익에 대해 인식해 오고 각 사회, 시대,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하고 외부 사회 및 상황과 상호 관계해 오며 영적 도움의 형태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왔다. 기독교 사회에서 영적 도움을 요청하는 구성원은 늘 있었고 그들에 대한 응답도 쉽 없이 계속되었다. 한 사회가 의미하는 바가 구성원이 상호 관계하며 영향을 끼치고 자치(self-governing)나 서로 간의 도움을 통해 공동의 바람을 이루고 이를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를 갖는다는 것이라면 영적 지도는 기독교 사회와 구성원에 필요한 도움의 행위이고 이를 위해 그 내용과 체계를 변화시켜 온 것이다. 영적 도움으로서 영적 지도가 개별 기독교 사회의 구성원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고 실천된다면 각 기독교 사회는 이를 거

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적 지도의 사회적 차원은 사회 통합이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관상기도의 예는 개별 기독교 사회에서 영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기독교 신학과 전통,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수용될 수 있을 때가 아니면 영적 방편에 대한 의견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관상기도에 대한 세미나와 프로그램 등이 시작되고 10년 정도 지난 2011년을 전후해 합동과 합신 등 교단과 교회는 공식적으로 관상기도를 거부했다(Kwon, 2022, 182). 영적 지도가 관상을 핵심 자세, 상태, 목적으로 설정할 때 한국 개신교 내의 여러 교단과 교회는 관상기도를 거부했듯이 영적 지도를 거부할 수 있다. 전체 개신교 사회는 개별 기독교 사회와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과 구성원의 유익에 대한 자치적 조치이자 도움의 행위로서 영적 지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어떠한 규칙이나 합의를 내세워 이를 막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의 개별 개신교 사회 즉 교단이나 교회는 구성원의 영적 상황과 필요에 대한 자치적 판단과 조치로 각기 다른 영적 도움과 훈련을 해왔다. 상대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부를 만한 영적 방편에는 예배, 설교, 부흥회와 사경회, 성경 묵상, 찬양, 기도, 금식, 제자 훈련이나 속회 또는 구역회 등과 같은 소그룹 교육, 심방, 목회 상담과 돌봄 등이 있다. 새로운 영적 방편이나 도움이 기존의 영적 방편과 같이 보편적 방편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개신교 사회가 설정하고 있는 영적 수용성의 범위와 기준에 맞추거나 이를 변화시킬 만큼의 설득력과 영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설득력은 개신교회에 적합한 신학적 해석과 성경적 기원, 영적 지도 프로그램의 내용, 목적, 실천 등이 될 수 있고, 영향력은 다수의 교회가 이를 수용하고 따르고자 할 때 획득될 수 있다. 이는 개신교 성령 운동을 통한 방언(speaking in tongues)의 확산에서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성령 운동 초기 또는 방언 확산 초기 개신교회가 방언에 대해 신학적으로 비판하고 거부했던 모습에서 점차 목회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던 모습이다. 현재도 많은 교회가 방언을 거부하고 있지만, 방언이 상당한 영향력으로 확산한 것은 신학적으로 방언을 정당화하는 과정과 여러 교단과 교회가 공식적 또는 목회적 이유로 수용하는 상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루터 이후 개신교는 많은 부분에서 천주교와 다른 영적 영역을 구축했다. 루터와 개신교인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의 구호 아래 목회자와 성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영적 교육을 하고 구성원의 영혼을 돌보아왔다. 그렇다고 해도 믿음과 말씀에 대한 이러한 신념을 영적 지도를 거부하거나 공격하는 말로 이용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루터가 강조하듯이 말씀과 믿음이 선행된다면 영적 지도나 수련을 개신교 전통에 부합한 형태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영적 지도를 요청하는 구성원은 믿음,

기도, 말씀 묵상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성도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이미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하길 원한다. 어떤 개신교회든 이런 성도에 대한 영적 지도를 망설일 이유가 없지만, 더 적합한 형태와 내용의 영적 지도를 기다리거나 개발할 이유는 충분하다.

영적 지도를 성도 개인을 돕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고 그 목적이 다양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개별 기독교 사회, 즉 교회 또는 교단 안에서 기도를 교육하고, 영적 삶을 공동체와 공유하고, 교회와 연결해 주고, 전문가인 목회자와 소통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회 전체와 기독교 사회에 해를 입히는 종교 행위가 조명받는 현시점에서는 더욱이 영적 지도는 공식 전문가인 목회자의 지도와 교회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다. 비록 개신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권위나 위계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개신교 목회자는 기도와 영적 도움을 교육하고 이끌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되고 인식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영적 전문성은 개신교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권위 역시 위계적 권위가 아닌 헌신하는 전문가로서의 권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양성에 있어 신학교에서부터 영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과 적용은 영적 지도를 포함해 가능한 많은 영적 방편과 도움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전문적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각 개신교 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각 개신교 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개신교의 한계이자 장점인 자치의 문제이다. 각 교단과 교회가 영적 지도에 대한 편견 없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영적 갈망을 느끼고 있는 성도를 위해 영적 지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며 연구를 마친다.

참 고 문 헌

- 권희순 (2006). **웨슬리 영성 수련 프로그램**. 서울: KMC.
- [Kwon, H. S.(2006). *Wesleyan spiritual discipline program*. Seoul: KMC.]
- 권희순 (2006). 여성의 영성과 영적 지도. **목회와 상담**, 8, 91-126.
- [Kwon, H. S. Women's spirituality and spiritual direction.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8, 91-126.]
- 권진구 (2019a). 1980년대 한국 개신교 영성연구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60, 227-259.
- [Kwon, J. G. Korean Protestant Studies on Spirituality in the 1980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0, 227-259.]
- 권진구 (2019b). 안토니의 생애와 파코미우스의 생애 속 정치적 요소에 대한 해석. **대학과 선교**, 41, 131-167.
- [Kwon, J. G. (2019). The political elements in the life of Anthony and Pachomius. *University and Mission*, 41, 131-167.]
- 김경은 (2015). 사회적 화해를 위한 영성지도의 긍정적 역할. **신학과 실천**, 43, 267-292.
- [Kim, K. E. (2015). The positive role of spiritual direction for social reconciliation. *Theology and Praxis*, 43, 267-292.]
- 김외식 (1990). 영성지도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세계**, 20, 160-186.
- [Kim, E. S. (1990). Study on spiritual direction. *Theology and World*, 20, 160-186.]
- 유해룡 (1997). 영성지도의 전통과 현대적 의미. **교회와 신학**, 31, 196-222.
- [Ryu, H. Y. (1997). The tradition and modern meaning of spiritual direction. *Church and Theology*, 31, 196-222.]
- 이강학 (2019). 미국 개신교 영성지도 실천과 연구 현황. **신학과 실천**, 66, 129-155.
- [Lee, K. H. (2019). Current practices and research of spiritual direction in the protestant churches of the USA. *Theology and Praxis*, 66, 129-155.]
- 이정순 (2018).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실천과 영적 지도. **신학과 실천**, 62, 187-210.
- [Lee, J. S. (2018). Christians' social practice and spiritual direction. *Theology and Praxis*, 62, 187-210.]
- 조한상·심종혁 (2015). 영적 지도의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 적용. **신학과 실천**, 43, 241-265.
- [Cho, H. S. & Sim, J. H. (2015). History of spiritual direction ministry and its contemporary practice. *Theology and Praxis*, 43, 241-265.]
- Aristotle (1916). *Aristotle's polit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Athanasius (2009a). **성안토니의 생애**. 엄성욱 역. 서울: 은성출판사. (원저 1979 출판)
- [Athanasius (2009a). *The life of Anthony & the letter to Marcellinus*. Translator: Eom, S. O. Seoul: Eunsung Publication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79)]
- Athanasius (2009b). Letter 49(letter to Dracontius) in Philip Schaff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2 Vol. 4*. Grand Rapids: Classics Ethereal Library.
- Athanasius (2009c). Letter 54(letter to Serapion, concerning the death of Arius) in Philip Schaff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2 Vol. 4*. Grand Rapids: Classics Ethereal Library.
- Athanasius (2009d). The festal letters - letter 1 in Philip Schaff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2 Vol. 4*. Grand Rapids: Classics Ethereal Library.
- Bakke, J. A. (2000) *Holy invitations: exploring spiritual direc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 Barry, W. A. & Connolly, W. J. (1982). *The practice of spiritual direction*. NY, Seabury Press.

- Beasley-Topliffe, K. (2003). *The upper room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 formation*. Nashville: Upper Room Books.
- Berger, P. L.(1977). **사회학의 초대**. 한원상 역. 서울: 현대사상사. (원저 1963 출판)
- [Berger, P. L. *Invitation to sociology*. Translator: Han, W. S. Seoul: Modern Thoughts Publication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63)]
- Enyegue, J. L. (2021). Spiritual direction in an African contex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eologica*, 53/2, 353-369.
- Giddens, A. & Sutton, P. W. (2018).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김봉석 역. 파주: 도서출판동녘. (원저 2017 출판)
- [Giddens, A. & Sutton, P. W. (2018). *Essential concepts in sociology*. Translator: Kim, B. S. Paju: Dongnyok Publisher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7)]
- Gregory of Nazianzen (2009). Oration XXI: on the great Athanasius, bishop of Alexandria in Philip Schaff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2 Volume 7*. Grand Rapids: Classics Ethereal Library.
- Ignatius of Loyola (1914).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of Loyola*. New York: P. J. Kenedy & Sons.
- Jones, W. Paul. (2005). **영적지도의 이론과 실천**. 배정웅 역. 서울: 은성출판사. (원저 2002 출판)
- [Jones, W. Paul. (2005). *The art of spiritual direction: giving and receiving spiritual guidance*. Translator: Bae, J. W. Seoul: Eunsung Publication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02)]
- Kwon, Jingu (2022). Understanding contemplative prayer in the Korean Protestant context.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9, 163-192.
- Lenski, G. & Lenski, J. (1987). *Human societies: an introduction to macrosociology*. Singapore: Graw-Hill Book Co.
- Liebert, E. (1992). *Changing life patterns: adult development in spiritual direction*. NY: Paulist Press.
- Luther, M. (1997a).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in *Works of Martin Luther vol. 2*. Albany: Books for the Ages.
- Luther, M. (1997b). A treatise on Christian liberty in *Works of Martin Luther vol. 2*. Albany: Books for the Ages.
- Luther, M. (1997c) A treatise on good works in *Works of Martin Luther vol. 2*. Albany: Books for the Ages.
- May, G. G. (2009). *Care of mind care of spirit*. NY: HaperSanFrancisco.
- Merton, T.(1960). *Spiritual direction and meditation*.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 Nelson, J. L. (2009). *Psychology, religion, and spirituality*. NY, Springer.
- O'Malley, J. W. (1983). *Studies in the spirituality of Jesuits: the fourth vow in its Ignatian context - a historical study*. St. Louis, Missouri: The American Assistency Seminar.
- Ozment, S. (1980). *The age of reform(1250-1550): an intellectual and religious history of late medieval and reformation Euro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homas A Kempis. (2011).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영철 역. 서울:도서출판가이드포스트. (원저 1471 출판)
- [Thomas A Kempis. (2011). *De imitatione christi*. Translator: Gu, Y. C. Seoul: Guidepost publication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471)]
- Ward, B. (1984), Spiritual direction in the desert fathers. *The Way*, 24/1, 61-70.